



주 제:	“ 죄짓게 하는 자는...”	“연중 제 26 주일 “	2009 년 9 월 27 일
복음 묵상:	[마르 9,37-47]	[민수 11,25-29]	[야고 5,1-6]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41 절)라고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가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마태 25,40)이라며 이러한 친절한 행위는 반드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마르 9,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는 것이 상급을 잃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반역자의 지도자를 처형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에 맷돌을 매고 바다에 던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 사건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요한의 그릇된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 형제라도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이러한 일을 조심하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의 범위를 열두 제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복음 전파에 참여한 모든 숨은 사람도 제자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형제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정애경 수녀님 주일 말씀묵상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부제님 서품식을 무사히 축복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열정을 다한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주성숙 리따 자매님 2 주간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점심 초대: 이재섭 니콜라스 형제님과 이 필로메나 부부님이 모든 성가대원들을 점심에 초대하셨습니다.
 • 언제: 10월 4일 교중 미사후
 • 어디서: Sylvan Park, Sunnyvale, CA
SF 매스터코랄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 김인숙 세실리아 성심 성가대 지휘자님 소속되어 있으며 출연합니다.
 • 언제: 10월 11일 오후 7시
 • 어디서: SF 헵스트 극장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청 일일 성가 피정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년 10월 31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 복음 [마르 9,37-4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 들이면 곧 나를 받아 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 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 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말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뿔들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끼이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 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 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 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 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1분 명상

♡ 행복한 생각이 행복한 말을 만든다♡ -“좋은 글” 중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나 실제로 말과 행동은 훨씬 미묘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다,

인간은 말과 행동으로 어렵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둘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따지고 보면 말이나 행동에 의해 생겨난다,

한 사람의 상황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드는 말의 매력은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말은 생각의 발현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에서 나온다,

오늘의 말씀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 코린 13,7).”